

계엄의 ★★★들, 尹 앞에서 입 꼭 닫았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현재 출석 국회 측 법률대리인 신문에 답 회피하고 증언 거부

“비상 계엄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 다.”(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형사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진술 할 수 없다.”(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린 4일 헌법재판소의 증인석에 선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핵심 인사들이 입을 굳게 닫았다.

국회 측 증인으로 나선 이들은 그동안 국회에서 자신들이 했던 증언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거나 국회 측 법률대리인의 신문에 답을 회피하거나 증언을 거부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 계엄군을 보냈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막고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하라고 지시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이날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측 질의에는 대부분 답을 거부했다.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직접 설명했다.

그는 “당시 차 안에서 핸드폰 3개를 가지고 지휘를 했다”면서 “장문을 통해서 바깥을 보면서 상황을 인지했고 쉬없이 전화가 오고 갔다”고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시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런 과정에 아마 군인들이면 장갑차 안에서 무전기 세 개 들고 작전을 하면서 무엇이 기억나고 안 나고 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비상 계엄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한차례 전화를 처음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질문에 대답했다.

그는 “비상 계엄을 방송으로 봤다. 이걸로 위법

여부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면서 “제 기억과 제3자 진술에 다른 것이 많다. 국회 출동 지시는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의 질문에 “없다.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했다고 생각해 지시를 따랐다”면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방송을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것을 위법 또는 위헌이라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행정과 사법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때 회복하기 위한 것도 계엄령 선포 요건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체포 명단을 알려줬다”는 취지로 증언, 윤 대통령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체포 명단을 공유했다는 신문에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으로부터 먼저 전화가 왔지만 통화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라면서도 “홍 전 차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거부했다.

그는 이날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진술도 거부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14명에 대한 명단을 받은 적 있느냐”는 국회 측 법률대리인의 질문에 “형사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진술 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12월 4일 새벽 12시 38분쯤, 부하들에게 ‘우원식·이재명·한동훈부터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국회 측 질문에 대해선, “증거 기록을 보면 이와 전혀 반대되는 진술도 많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통취재단〉

그는 “방첩사령부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국군 통수권자로부터 구체적으로 부여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군인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의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 절차였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국군 통수권자가 하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짧은 순간에 합법, 위법 생각하다는 것 자체가 군인들에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박범계 “왜 12월3일 계엄?” 명태균 “황금폰에 쫓아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황금폰’이 공개되는 것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3일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명씨의 주장을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설 연휴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 교도소에 수감 중인 명씨를 접견했다면서 “왜 (계엄 선포일이) 12월 3일이었을까 명씨에게 물으니, 명씨의 답이 ‘(윤 대통령이 황금폰에) 쫓아서’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2월 2일에 (창원지검에) 들어가면서 (명씨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정권 획득을 원하는 민주당측에 황금폰을 주겠다고 했다”며 “12월 3일 오후 5시까지 계속 명씨가 남 변호사를 통해 ‘특검에 가면

황금폰을 다 까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3일 오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울산에서 급거 상경한 뒤 그날 밤 계엄이 선포된 점도 거론하며 “이런 걸로 보서는 황금폰과 관련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윤석열의 판단이 들어가 부랴부랴 비상계엄이 시도된 것”이라며 “이건 제 해석”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황금폰 입수 여부에 대해선 “못한 것 같다”며 “(황금폰의 행방은) 명씨만이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느낌으로는 민주당이 잘하면 (명씨가 황금폰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나, 한 번 더 만나봐야겠다”면서 “여러 가지 명씨가 요구하는 것도 있다.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헌심판 신청

법원이 받아들일 땐 재판 중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공직선거법(250조 1항)상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자가족관계·직업·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는 규정이 헌법을 위배했다는 것이 이 대표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저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의 변호인도 같은 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시대가 많이 바뀌어 처음에는 합헌이었다가 위헌인

사례를 종종 찾을 수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와 질서에 맞는지,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만약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한다면, 현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현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재판부가 지난 공판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 진행과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각되면 이 대표 측이 곧바로 현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헌법소원은 재판 중단 효과는 없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